

# 松園 李曉鍾 한국인의 선비정신 출판기념회

## “선비정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 강조

포천시회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온 포천향토사연구소 소장으로서 다양한 출판활동을 통해 포천의 역사를 정리해온 역사학자로서 포천신문에 '포천의 명현탐구'를 96회 연재하여 포천사람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온 교육자 이호중 선생이 팔순을 맞아 '한국인의 선비정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포천의 유학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 포천의 유림 인사들과 정치인,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열띤 강의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본지 지문위원으로도 3년여를 활동해온 이호중 선생의 팔순기념 및 한국인의 선비정신 출판기념회를 취재하여 기록함으로써 역사의 자료로 남기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날 출판기념회는 박영근 포천동사무소 자치위원장의 이호중 선생 약력 소개와 포천시장의 공로패 전달,손자 손녀 등 모든 자손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꽃다발 증정,축사,축시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열 부시장이 대신 전수한 포천시장 공로패는 "포천시 향토사연구소 소장 이호중 소장님께서 평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중교육사업에 헌신하시고 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오셨을 뿐 아니라 특히, 포천시향토사연구소장으로서 포천독립운동을 비롯한 향토문화 역사에 대한 연구활동 및 책자발간과 면담 최익현 선생에 대한 승모사업등으로 포천시가 흥신, 명현,열사의 고장이며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

신 공적이 지대하시어 그 높은 공로를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어서 손자 손녀들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큰절로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선물을 증정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어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의 축하의 인사말과 이석구 전 포천예술인동우회장의 축시낭송,전 포천향교 유봉현 전교의 축시,전 포천문화원 최준규 원장의 축시,포천향교 양재창 전교,만송 유재용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축시는 병풍에 부착시켜 하나하나 의미를 새겨주기도 해 마치 서당에 온 느낌을 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계홍, 양기성 용연서원장, 길명사 도유사 이창수, 포천한시회 박동규 간사, 정기용 유도회장, 이병찬 예술인동

우회장은 축시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병풍에 축시를 붙여 축하하기도 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호중 선생은 "한국인의 선비정신을 잘 계승해야 어른을 존경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을 강조하고 "선비정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고 밝혔다.

이날 축하공연은 김진동 포천예총회장의 통소시연과 박영실 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장과 송장희 국악인의 축하무대가 이어졌다.

하나의 시낭송을 하듯 이날 출판기념회는 포천의 정체성을 선비정신을 통해 일깨워주는 자리이며 포천의 새로운 문화창달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정열 포천시 부시장이 박영근 시장을 대신하여 포천시장 공로패를 전달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포천문화원장의 축사와 이석구 전 포천예술인동우회장의 축시를 게재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삼고자 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松園 李曉鍾先生八旬 讚詩



이석구

前 포천예술인동우회장

松園 李曉鍾先生  
소나무 숲 松園에 鶴이 난다  
하늘로 부리 치켜들고  
곧은 姿勢로 두 발을 모아 뻗었다.  
비상하는 鶴의 貌習에서  
松園 先生의 아름다운 姿態를 본다.

80平生 꽃꽂한 姿勢로  
學問을 가까이 이 時代 선비의 몸짓을  
理想으로 삼아 自我를 구현하고  
힘난한 時代 살며  
憂國哀情을 가슴에 담아  
不幸을 슬퍼도 했다.

抱川에서 보낸 訓長 36년의 半平生은  
헛되지 않아 千軍萬馬의 弟子 기르고  
지금 弟子의 護衛로 깃발을 흔드는  
老將의 의연함이 보람으로 남았다.

1,2代 京畿道教育委員 8年은  
教育行政의 지킴이로  
京畿道教育의 탄탄대로를 가는데  
獻身 奉仕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調査委員으로 10年은  
歷史 學問研究의 基礎를 다지며  
史觀을 定立해  
나라의 正體性을 지키려는  
至高한 信念이었다.

松園에서 태어나 꿈쩍이 사랑한 抱川에서  
郷土史研究所長으로 13年은  
抱川 歷史를 整備하고  
잊혀지는 文化財의 價値를 復元하는데  
이바지했다.

勉庵先生을 우뚝 세우고 운담영당, 길명사  
趙得男將軍 旅開을 지으며 몸소 앞장섰다.  
그의 周邊에 살, 담배 멀리하고  
앓은 자리 항상 깨끗하니 自身을 사랑함으로  
아내 사랑 지극하여 賢母良妻의 內助를 받으며  
結婚 57年.

7男妹 사람답게 기르니  
그 즐거움이 어찌 幸福 長壽의 길이 아니리오

붉은 저녁노을에 色깔이 하이얀 鶴의 날갯짓은  
아직도 熱情으로 남아  
 먼 旅程을 재촉하노니  
오랫동안 만수무강 好소서!  
松園의 白鶴이여!

### 祝辭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은누리에 국화 향기 그윽하고 황금물결 출렁이는 결실과 풍요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榮華스러운 산수연을 맞으시는 松園 李 先生님께 우리 文化家族 모두와 더불어 眞心으로 祝賀의 인사를 드려 마지 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경사를 맞으시는 사모님을 비롯하신 가족 친지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산수연은 송원선 先生께서 그동안 집필해오신 소중한 글들을 한권의 책으로 묶은 8순 기념문집 "한국인의 선비정신"출판 기념을 겸하여

갓으시게 福을 더욱 祝賀를 드림 선비들이 살아오신 참다운 모습을 더하여 동방 예의지국의 榮光을 되살리시고자 그동안 애서오신 先生님의 진리탐구와 집필의 의지에 마음깊이 경의를 표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송원선先生께서는 오늘 내놓으시는 이 책에서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신을 선비정신이라고 정의하시면서 중국의 군자도, 영국의 신사도, 미국의 개척정신과 비유하셨습니다.

또 선비는 지식인이요,선비는 실천하는 사람이요,선비는 인격의 조화를 갖춘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선비가 되여가는 수련에 있어서는 선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닦여지는 것인데,그 닦여져지는 방법의 하나는 학문을 통해 자신의 식견을 깊고 바르며 확고하게 정립해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수양을 통해 그 마음을 부드러우면서도 굳세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게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이땅에 선비정신을 선양하고 실천하는 일이 곧 애

국ियो 애족임을 일찍부터 천명하신 선생님은 선비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시며 항상 의롭고 어려운 길을 마다않으시고 信念과 哲學을 몸소 실천해오신 우리 지역 선비의 표상이심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원선先生님은 이 나라가 암흑과 혼돈속에서 헤매던 1920년대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어 일제강점기의 수난을 비롯 8.15 해방이후의 격동기와 민족의 비극인 6.25동란, 그리고 수차례 걸친 정치적 변혁 등 파란만장한 한국의 근대사를 지켜 보시면서 시대의 변화를 더불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부박한 외래의 사조들이 동방 예의지국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며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통탄해 하시며 항상 비분강개하셨습니다.

교직 36년간 교육위원 8년의 교육계 재직 시절에도 세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탐구와 교육발전을 통한 도의 선양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열정적인 강의와 고매하신 인품으로 후학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며 군자의 덕목을 몸소 실천하신 선비 중의 선비 이심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사학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한국사의 올바른 정립과 집필에도 힘쓰시는 한편, 포천향토사연구소장과 포천문화원 고문으로 재임하시면서 흩어져 있는 향토의 역사를 한데 모아 여러 편의 책으로 정리 발간하시는 등 우리지역 향토사 연구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시는 한편 우리 문화원 발전에도 크게 공헌해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한말 위정척사 운동의 지도자이신 면담 최익현 선생 승모사업회 회장을 맡으시어 면담선생님의 애국심과 항일 독립정신을 선양하시는 한편 나라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선현들의 사상과 업적을 널리 알리시어 나라와 지역을 이끌어 온 참다운 정신적 지주와 사상의 맥이 과연 무엇인지를 후학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해로하시며 슬하에는 5남2녀가 모두 독립운동가의 후예답게 훌륭한 기

상과 빼어난 재주로 사회와 지도층에서 또는 중견의 관리자 로써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손자 손녀 또한 이 나라의 훌륭한 존재로써 손색 없이 자라나고 있으니 어찌 선생님께서 갖추신 행복과 크신 뜻을 성취하셨음을 축하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심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인이 얘기하기를 "넘어가는 해와 지는 노을이 더 아름답다" 했습니다. 또 "노후가 행복해야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송원선先生께서는 연륜은 높으시나 타고나신 건강이 있으시기에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강의와 좋은 글로 후학들을 이끌어주시고, 어둠을 비추는 밝은 등불의 빛을 더욱 밝게 빛내주시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을 가려 훌륭한 문집과 더불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송원선先生님!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공장 직영 장갑 · 테이프 · 각종 끈

# 농업용 비닐 농자재 전문 “일신포장비닐총판”



- ✦ 마대 · 보루 · 본드 · 랩 · 설리콘 · 가구용비닐
- ✦ PP · PE · 하이텐 · OPP 테이프 · 차광막
- ✦ 농업용 비닐 · 각종 포장끈 · 밴딩기계판매/A/S



찾아오시는 길

가산삼거리 내촌  
가구단지

마이산 전주식당

태일조명

일신비닐포장

송우리

하송우 사거리

포천

동두천